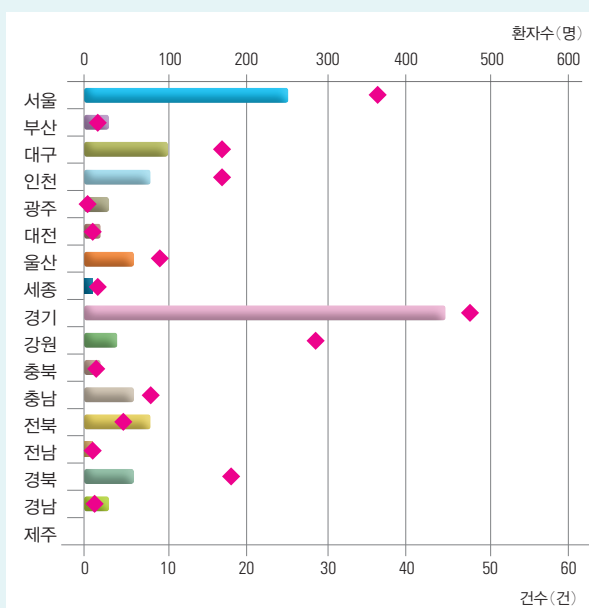


12월 겨울철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

노로바이러스·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음

발생 지역

막대 : 건수 ◆ : 환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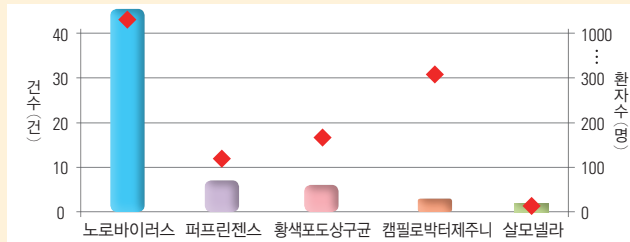


- 주로 경기(44건), 서울(25건), 대구(10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
※ 경기(수원9건), 서울(강남6건), 대구(동구4건) 등의 지역은 특별히 주의 필요

원인균 현황

막대 : 건수 ◆ : 환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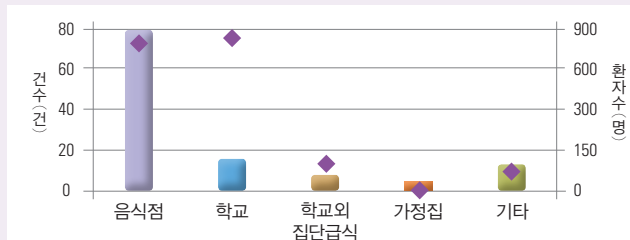


- 주요 발생원인균 중 노로바이러스(52건)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음

※ 퍼프린젠스(7건), 황색포도상구균(6건) 등

발생시설 현황

막대 : 건수 ◆ : 환자수



- 음식점(80건), 학교(17건), 기타(12건) 순으로 발생이 있었음

※ 칫솔·일식(25건), 고교(6건), 야외활동 및 행사장소(2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
[이 달의 주의사항]

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방법



- ① 최근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, 유치원 영·유아,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서 구토를 주증상으로 하는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②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여 사람 간 전파, 음식외의 경로(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, 비말감염(공기), 문손잡이)로도 집단감염 발생이 가능하므로 구토물 발생시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종이타올 등을 활용하여 즉시 제거 한 후 반드시 염소소독액(5,000ppm)을 사용하여 소독하여 주시고 유아들의 개인위생 지도 등 집중관리를 요청.
※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 약 1억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 포함 /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한변 구토에 공기 속으로 40~10,000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 전파 / 10개 입자 이하의 소량만으로 감염 가능
- ③ 노로바이러스 카드뉴스, 각종 홍보물을 활용(식중독예방·홍보사이트 www.mfds.go.kr/fm)하여 식중독예방 교육·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